

# 개신교 인구 비율, 최악의 경우 10년 뒤 10%로 추락할 수 있어!

1998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인의 종교 실태와 신앙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4년 한미준에서 2차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이 조사를 이어받아 3차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로 5번째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지난 25년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인식을 추적한 유일한 보고서로서 그 의미가 있다. 넘버즈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5회에 걸쳐 한국인·개신교인·목회자의 종교·신앙·목회 활동과 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가 다룬 내용의 주목할 만한 결과로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점차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개신교인 비율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15%까지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속도라면 최악의 경우 향후 10년 뒤 개신교인은 총인구의 10%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감지되었다.

이번 넘버즈 <206호>는 한국의 종교인구 변화 추이, 현재와 향후 개신교 인구 변화 예측,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특히 무종교인) 간 종교/신앙 인식 차이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 ② 한국인의 종교 및 교회 인식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 1)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조사

구분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2,000명(유효표본)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추출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표본 오차	± 2.2%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 3.1%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01월 09일 ~ 16일(8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2) 종교 인구 파악을 위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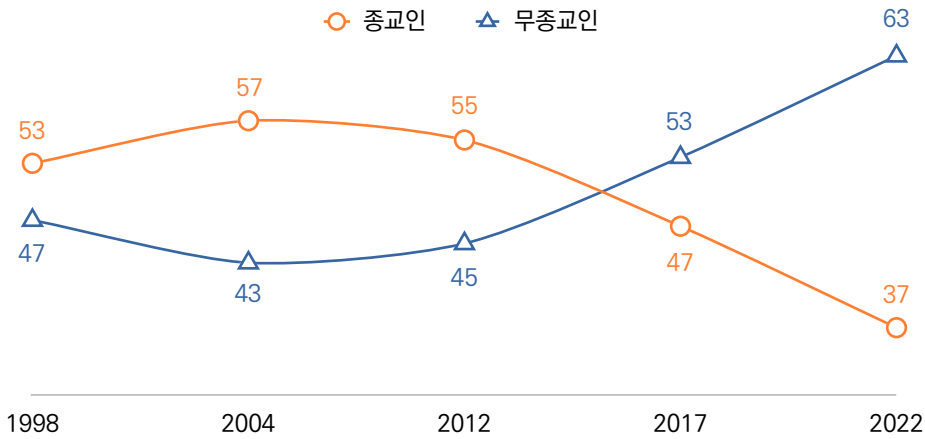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9,182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대면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Random Sampling)
표본 오차	± 1.02% (95% 신뢰구간)
조사 기간	2022년 02월 ~ 11월
조사 기관	(주)한국갤럽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01

## [종교 인구 분포] 한국사회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

- ▶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로 종교인이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시점인 1998년 이래 종교인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계속 앞서다가 2017년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앞질렀고, 그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며 종교인과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전체적으로 2012년 이후 탈종교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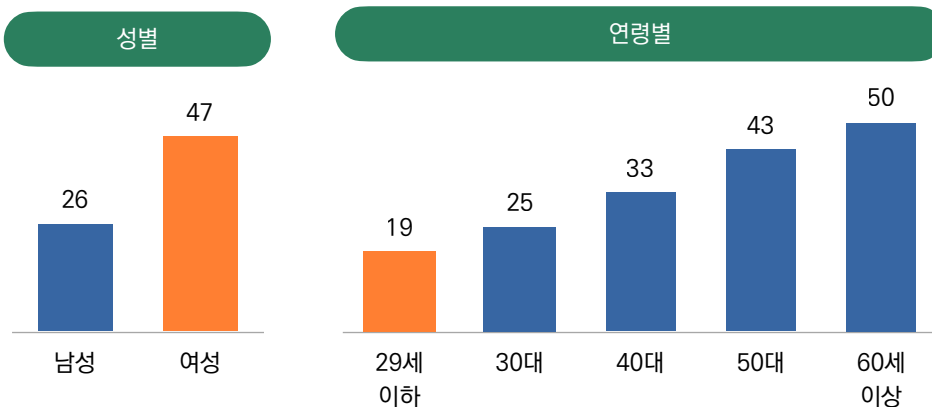
[그림] 종교 인구 변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 ◎ 20대 종교인, 5명 중 1명에 불과!

- ▶ 우리 국민 중 종교가 있는 '종교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성(47%)이 남성(26%)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 20대의 경우 종교를 가진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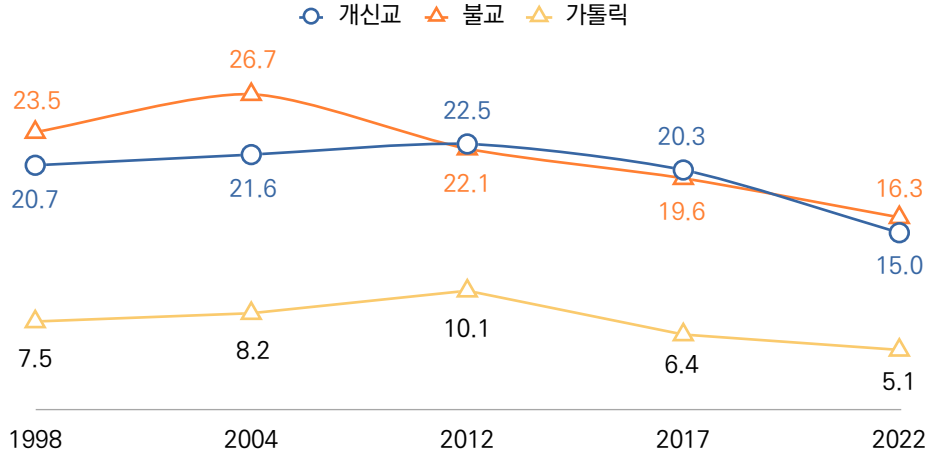
[그림] 특성별 종교인 분포 (2022, %)



## ◎ 개신교인 인구, 전체 인구의 15%로 하락 추세!

- ▶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신교, 불교, 가톨릭 전 종교 모두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불교 16.3%, 개신교 15.0%, 가톨릭 5.1%로 조사됐다.
- ▶ 연령별로 보면 20~30대 개신교 인구 비율은 10% 초반대로 평균보다 낮지만, 타 종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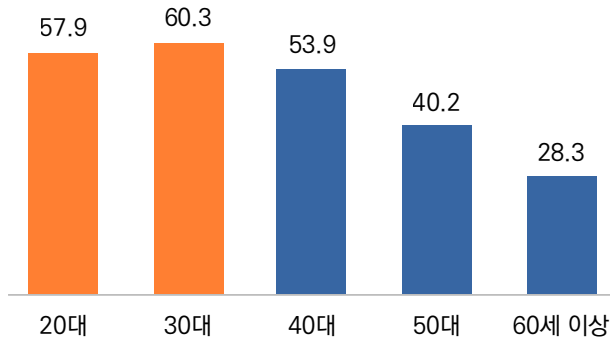
[표] 특성별 종교 인구 분포 (2022,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개신교	15.0	10.9	19.0	11.0	14.6	17.8	17.0	14.2
불교	16.3	11.6	20.9	3.5	4.7	10.4	20.1	30.2
가톨릭	5.1	3.5	6.7	4.5	4.9	4.8	5.2	5.7
기타	0.2	0.2	0.2	0.0	0.2	0.1	0.2	0.3
무종교	63.4	73.8	53.1	80.9	75.5	66.8	57.5	4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2030 MZ세대의 경우 종교인 중 개신교가 60%의 점유율 차지!

- ▶ 종교인을 기준으로 개신교 점유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57.9%, 30대 60.3%로 2030 MZ세대의 경우 개신교가 전체 종교 중 거의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다음 세대로 가게 될 경우 한국 종교 중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인구가 줄고 개신교 인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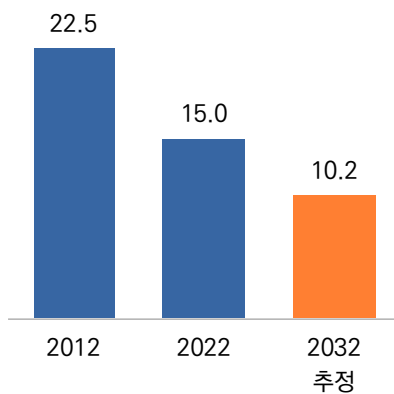
[그림] 종교인 중 개신교인 점유율 (연령별, %)



## ◎ 개신교 인구 비율, 최악의 경우 10년 뒤 10%로 추락할 수 있어!

- ▶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은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에서 2022년 15.0%로 줄었고, 이 추세를 반영하여 10년간 단순 하락 기울기를 반영,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

[그림]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총 인구 기준, %)



[표] 개신교 인구 추이 추정 \*\*

연도	비율	개신교 인구	총인구
2012	22.5%	1,146만 명	5,095만 명
2022	15.0%	774만 명	5,163만 명
2032* 추정	10.2%	521만 명	5,108만 명

\*2012년과 2022년 간의 하락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32년 추정치를 산출하였음  
\*\*이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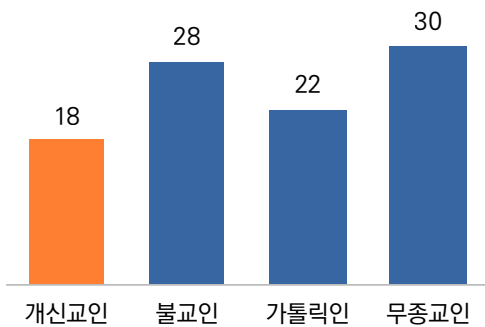
# 02

## [종교 스위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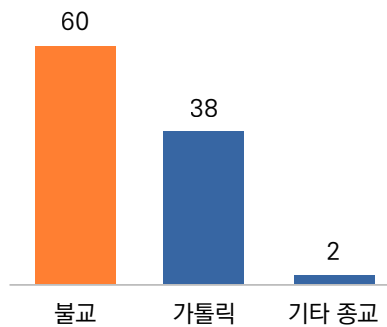
### 개신교로 종교 이동, 가톨릭보다 불교가 훨씬 많아!

- ▶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현재 무종교인 30%가 과거 타 종교를 믿었다가 무종교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인 28%, 가톨릭인 22%, 개신교인 18%가 과거 타 종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과거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불교에서 온 경우가 10명 중 6명(60%)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이 38%로 뒤를 이었다.

[그림] 종교인별 과거 타 종교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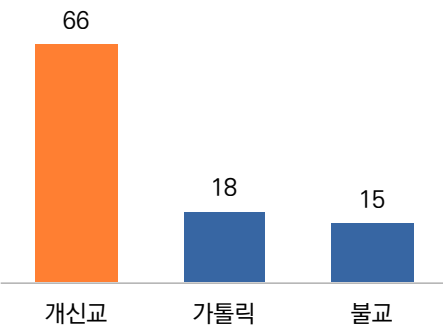
[그림] 개신교인의 과거 종교 (과거 종교 경험 있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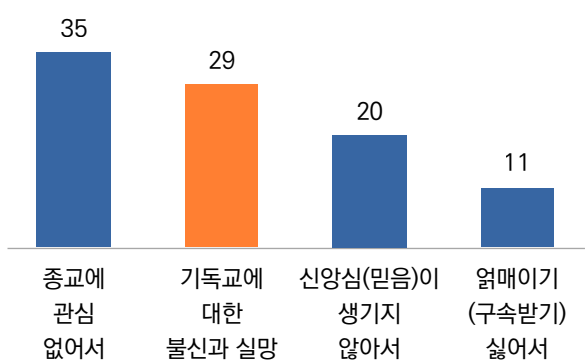
### ◎ 개신교인이 종교를 버린 이유,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29%!

- ▶ 무종교인의 과거 종교는 개신교가 66%로 타 종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과거 개신교였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5%로 가장 높았으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란 응답도 10명 중 3명꼴(29%)로 나타났다.

[그림] 무종교인의 과거 종교 (% , 기타 종교 제외)



[그림] 과거 개신교인 중 현재 무종교인이 된 이유 (과거 개신교인 중 현재 무종교인 전환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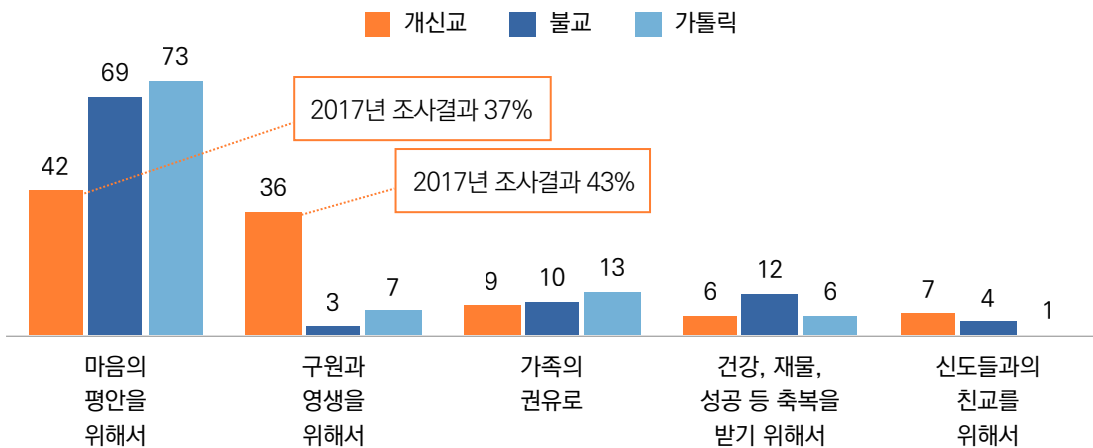
# 03

## [한국인의 신앙 의식]

### 개신교인의 신앙 생활 이유, '구원과 영생'보다는 '마음의 평안'!

- ▶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응답했고,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36%)의 경우 타 종교(가톨릭 7%, 불교 3%) 대비 '구원과 영생'을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 그러나 개신교인의 경우 역시 신앙생활 이유로 '구원과 영생' 요인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개인적 필요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이다. 1998년 조사 이래로 매년 개신교인 신앙생활의 이유 1순위였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처음으로 2순위로 내려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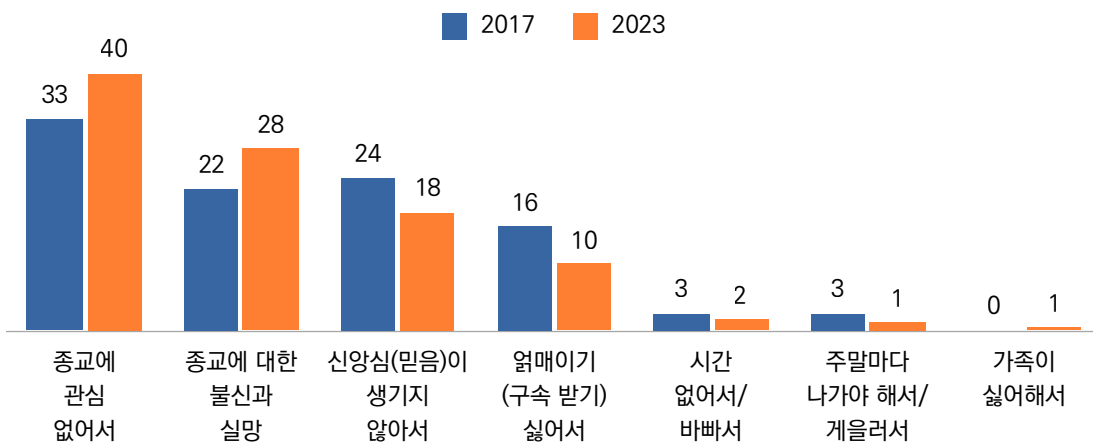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 (종교인, %)



### ◎ 무종교인의 증가 요인,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

- ▶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 없어서'가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률은 이전(2017년) 조사 대비 7%p 상승했다. 2위로 응답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역시 6%p 증가하여,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가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실망이 더욱 무종교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무종교인의 비신앙 이유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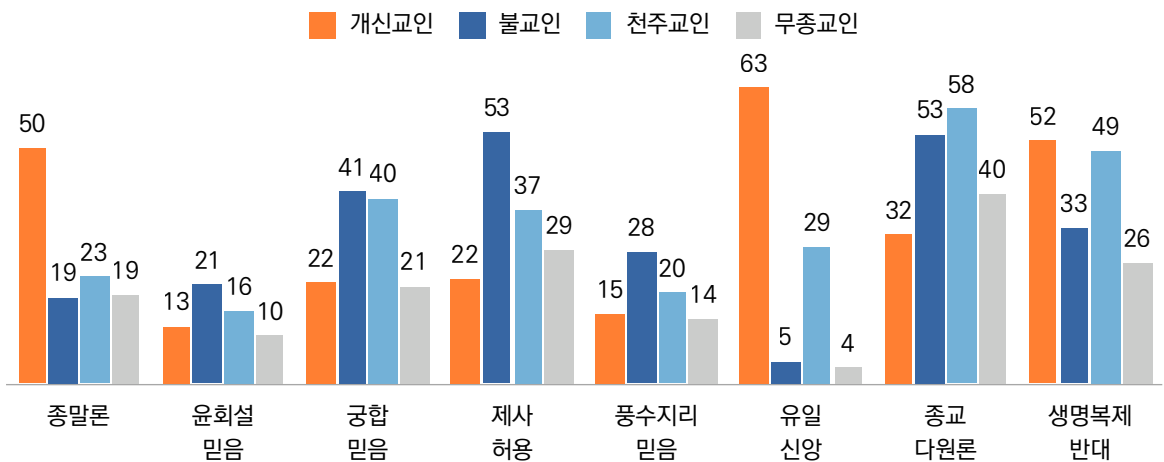


# 04

## [한국인의 종교 의식] 종교 다원론 믿는 개신교인, 32%!

- ▶ 다양한 종교 교리에 대해 종교인별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의 경우 '유일 신앙'을 믿는 비율이 63%에 그쳤고, '종말론'에 대한 동의율은 50%로 응답되었지만 타 종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 ▶ 특히 하나의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종교 다원론'을 믿는 경우가 개신교인 3명 중 1명꼴(32%)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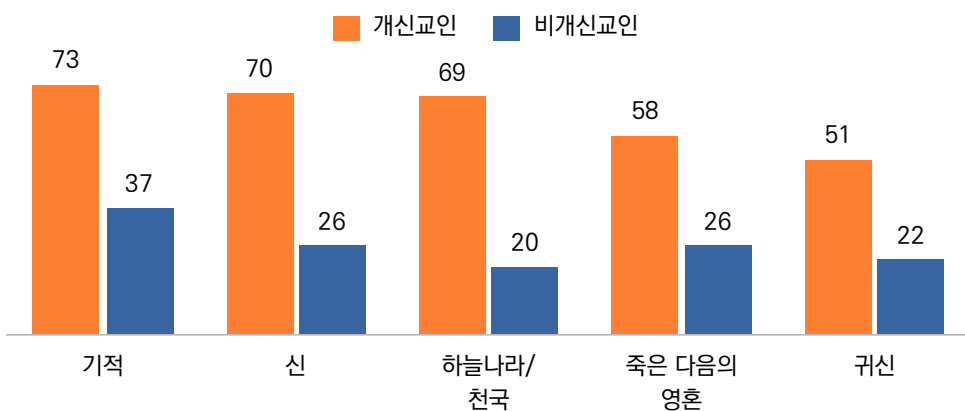
[그림] 종교 교리 인식 (동의율, %)



### ◎ 개신교인의 신(하나님)에 대한 실존인식('존재한다') 70%에 머물러!

- ▶ 비개신교인/개신교인을 대상으로 기적, 신, 천국 등과 같은 종교적 개념을 제시한 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은 '기적' 73%, '신' 70%, '하늘나라/천국' 69% 등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데 반해 '비개신교인'의 종교적 실존 인식(동의율)은 모든 항목에서 개신교의 절반 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종교적 개념 실존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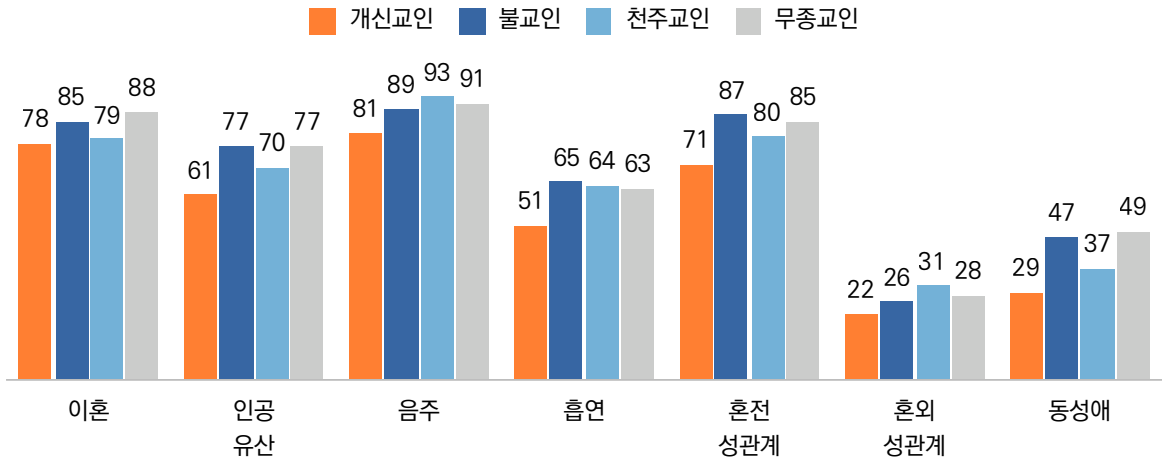




## ◎ 개신교인의 윤리 의식, 종교인 중 가장 보수적!

- ▶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로 언급되는 '이혼', '인공유산', '혼전 성관계'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종교인별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종교인이 윤리 문제 전반에 있어 가장 수용도(상황 따라 가능+해도 무방)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개신교인의 수용도는 전 항목에서 가장 낮아 개신교인이 종교인 중 가장 보수적 경향을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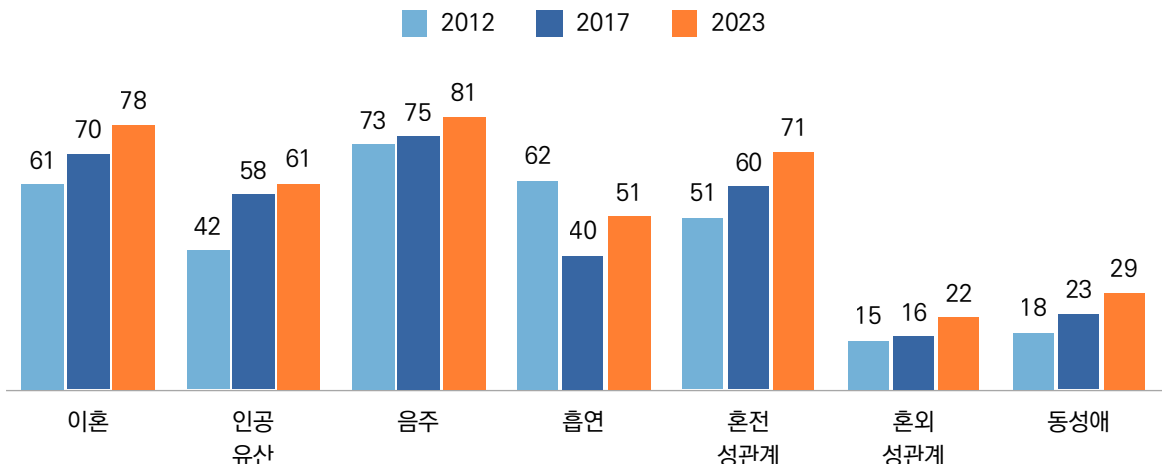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윤리문제 인식 (긍정률, '상황따라 가능+해도 무방' %)



## ◎ 하지만 윤리문제 인식, 개방적 변화 추이는 개신교인에게도 예외 없어!

- ▶ 그렇다면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신교인의 수용도(상황에 따라 가능+해도 무방)는 어느 정도일까? 이혼, 인공유산, 음주, 흡연 등 모든 항목에서 2017년 조사 대비 개신교인의 수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혼전 성관계의 경우 2023년 각각 51%, 71%로 이전 조사보다 모두 11%p 상승하여 이에 대한 개방적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 ▶ 혼외 성관계, 동성애를 제외한 음주(81%), 이혼(78%), 혼전 성관계(71%), 인공유산(61%), 흡연(51%) 항목(2023년 기준, 높은 응답률 순)에서 개신교인의 수용도(상황에 따라 가능+해도 무방)가 절반 이상을 크게 웃돌아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개방적 변화 추이가 개신교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의 경우 2012년 각각 51%, 15%에서 2023년 71%와 22%로 크게 상승했고, 동성애 역시 수용적 태도가 2012년 18%에서 2023년 29%까지 높아져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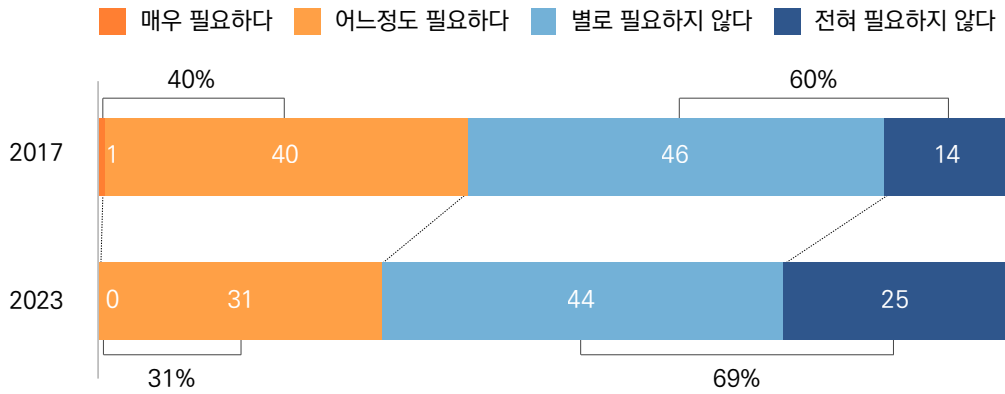
[그림] 개신교인의 윤리문제 인식 (긍정률, '상황따라 가능+해도 무방', %)



## ◎ 종교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무종교인, 지난 5년간 더 많아져

- 무종교인은 인생에서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낄까? 무종교인 69%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하다' 느끼는 경우는 31%였다. 무종교인 10명 중 7명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로 2017년 조사(14%)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종교 자체에 부정적 혹은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무종교인의 종교 필요성 인식 (%)



# 시사점

종교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22년 종교인, 즉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37%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종교를 가진 한국인이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셈인데, 더 주목할 점은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2004년 종교인 비율 57%가 2012년에는 55%로 2%p 감소했는데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8%p 감소,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10%p 감소해서 종교 인구의 하락 폭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종교인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각 종교별 신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개신교인 비율은 15%로 10년 전에 비해 7%p 하락한 수치이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서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2.2%p,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5.3%p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개신교인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 먼저 과거 개신교인이었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이유를 보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5%,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29%로 각각 1위, 2위 이유였다. 즉 종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의 저하, 기독교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개신교 하락의 주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무종교인의 비신앙 이유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40%)이고, 그다음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28%)이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여도 종교적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신교인 인구의 하락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하락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종교 교리에 대한 인식이다. 첫째로 개신교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종말론, 유일 신앙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50%와 63%밖에 되지 않았다. 불교인도 불교 고유 교리인 윤회설에 동의하는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았다.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몰입도와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로 개신교인 가운데 윤회설에 동의하는 비율이 13%나 되었다. 불교인이 윤회설에 동의하는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13%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불교인이 기독교의 종말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19%나 되었다. 이처럼 종교를 막론하고 타 종교 교리에 대한 동의율이 적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종교인들에게 종교믹스(Mix)적 성향과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개신교인 가운데 '유일 신앙'에 동의하는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았고 '종교 다원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32%나 되었다. 종교 다원주의에 동의할 경우 특정 종교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 종교 혹은 종교 자체를 쉽게 떠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개신교인에 한정해 봐도 주요 종교적 개념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기적(73%), 신(70%), 하늘나라/천국(69%)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70%대에 머물고, 영혼(58%)과 귀신(51%)이 있다는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아도 개신교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탈종교화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는 합리화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세속화 과정에서 종교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다는 이론, 즉 세속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종교는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욕구는 있으나 기존 종교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교인이 줄어들지만, 미충족된 욕구는 늘 존재하므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위의 두 가지 이론 가운데 어떤 이론이 더 적합한지는 학자들에게 맡겨 놓아야 할 터이지만, 이 이론들과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첫째로 현대인은 종교의 초월적 성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현대인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로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개신교인에게 기독교의 정체성과 핵심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심어줄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로 시대 변화와 함께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화되는 종교적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